

도서관의 입장에서 본 독자의 읽을 권리

- (3)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고유의 기능과 권한을 보장할 것.
- (4) 국립중앙도서관을 핵심으로한 국가적인 협조체제를 수립할 것.
- (5) 국회도서관은 현행대로 분리시킬 것.
- (6) 국가문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에 포함시킬 것.

그리고 정책면에서는

- (1) 국가도서관설치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
- (2) 규장각도서를 국립중앙도서관에 관리 전환하고 국가의 책서보전에 힘쓸 것.
- (3) UNESCO 기한도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접수토록 할 것.
- (4) 중앙공보관을 제외한 지방의 공보관, 문화관 등은 당 지역 공공도서관과 통합시킬 것.
- (5)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하여금 National Lending Sewire를 강력히 추진할 것.
- (6) 도서관협회는 국가도서관제도를 연구 정부에 자문·건의할 것.
- (7) UNESCO 한국위원회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두고 위원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겸하도록 할 것.

등을 들 수가 있다.

이상은 우리나라의 도서관의 기본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문제들을 제시해 본 것으로 그 발전을 위하여는 보다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부언을 요치 않는다. 이상 몇가지 요점을 가지고 본대회의 주제요지로서 삼는다.

도서관의 입장에서 본 독자의 읽을 권리

김 영 조

(서울특별시립중앙도서관)

1. 금년은 유네스코가 「세계 도서의 해」로 선포한 해이다. 이 목적은 도서가 국가발전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이에 관심을 집중시키려는 데 있으며 나아가서는 독서의 생활화로 국민정신 함양에 힘쓰도록 한 것이다. 「책은 만인의 것」이란 슬로건을 내세워 세계적인 규모로 캠페인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2. 도서가 인류문화의 전승도구로서 현대문명에 끼친 영향력은 실로 막중한 것이며 미래를 개척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제시해 주고 있다. 도서는 또한 인간 정신자원 개발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며 이로부터 새로이 창조된 구원 지혜와 지식은 모든 진보의 수단이 됨으로서 도서는 국가의 발전을 지름길로 촉진시키는 필수도구인 것이다.

우리는 지난 10년 이래 눈부신 발전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결과는 어떠한가? 경제위주의 발전이다. 경제성장에 따라 물량면에만 너무 치중했기 때문에 심각한 효과는 좋다고 하겠다.

물질문화의 발전은 그에 앞서 국민 개개인의 정신자세의 확립이 선행, 적어도 병행해서 경제개발을 위한 토대를 이룩해 놓아야 한다. 국가의 발전은 물량적 경제성장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며 정신·물질 양면의 문화향상과 신장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룬 발전이 진정한 발전이라 하겠다. 경제일변의 편중된 발전과정에서 보여주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우리는 체감하고 있지 않은가? 물질문화를 이룩해 놓을 수 있는 바탕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인간 정신이다. 풍부한 지력, 숙련된 기술, 굳은 신념과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정신의 계발은 도서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만이 확고해지는 것이다.

3. 출판이란 인류의 지식을 조정하고 유지, 보존 및 전파를 위해서 책으로 조형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전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수복제되어야 한다. 출판이란 그가 지니는 문화적 가치와 국가발전에 대한 기여 다시 말하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전달, 보급시키며 국민의 창조적 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새 사회가 요구하는 새



(우제발표 하는 김영조선생)

로운 유형의 인간을 발굴해 내는 역할에 대하여 높이 평가해야 하겠다.

출판은 「문화의 척도」라는 말이 있듯이 그 나라의 사회동태를 파악할 수 있고 문화의 진도를 측정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출판사정은 어떤가? 너무나 저조하다. 이것이 경제성장에 따른 물질문화의 발전과 병행하지 못했고 오히려 부진 후퇴하고 있다. 자금의 구성, 판로문제, 또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는 등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으나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거시적 안목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자료의 빈곤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염두에 두고 출판인들 본연의 중대한 사명을 완수하도록 제반 사정을 극복해 내며 단결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향상발전을 위한 기틀을 굳건히 해야 할 것이다.

4. 오늘 날의 도서관은 지식의 총집결지이며 지식의 유통을 담당하는 중추적 조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서관은 사회개발에 필요한 문헌정보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소통시킴으로써 도서관의 사회적 의미를 보다 광범하게 보다 잘 인식시켜 국가발전의 구심점을 이루는 도서관활동에 온 국민이 호응해 올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하겠다.

우리 도서관인은 정신자원을 계발하고 문예중흥을 촉진해 나가는데 보탬이 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국민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로서 자신들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하고 국민생활과 도서관을 직접 연결시켜주며 범국민적 서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모든 국민이 풍요한 인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사자(使者)의 구실을 다 해야겠다. 우리는 최대한의 기동력과 봉사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서관법 미비점의 개선, 도서관에 대한 투자, 증설문제등을 관계기관에 강력한 협찬요구를 해야 하며 한편으로는 도서의 생산자인 출판인들에게 자극을 줌으로써 대량의 양서출판을 촉진해야 하겠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 제여건을 냉정히 분석검토하여 알찬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의 초점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자.

5. 우리 국민의 일인당 년평균 독서량은 48페이지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경우는 2천 내지 3천페이지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비교도 안된다. 이와같은 저조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철저히 규명하여 처방해야 하겠다.

우리 국민의 독서가 선진외국과 같이 보편화 생활화 되어 있지 못한 것은 우리의 사회가 아직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한데 큰 원인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근래에 와서는 배급사상의 고조와 소비성향에 들떠 있고 지식의 섭취를 다만 안이한 시청자 매스콤에 의지함으로써 국민의 독서율이 감퇴경향으로 흐르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독서가 많은 국민들과의 거리가 먼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독서가 의식주와 같이 생활의 필수조건이라는 것을 다시 역설하면서 국민 모두가 책의 필요를 느낄 수 있는 사회풍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다.

독서운동은 어떻게 하면 책을 읽고 읽힐 수 있는가의 과제로서 독서의 습관화는 어려서부터 독서습성을 기르도록 하는 부모들의 배려, 교과서위주의 교육제도 시정, 책과 접촉할 기회를 조성하는 것으로 도서관망의 확장, 열가본의 양서제작과 공급을 맡는 출판업의 육성, 각종 문화단체의 협조, 범국민적인 독서운동이 국가정책상의 문제점으로 다루어 지는 등 우리 모두가 협조하면 이 운동이 소기의 목적은 어느정도 이룩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유네스코에서 채택한 도서현장 제1조에 「모든 사람은 책을 읽을 권리가 있다」라고 한 말을 상기하면서 모든 국민이 읽고 싶은 책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책이라도 찾아 볼 수 있도록 최대 가능의 뒷받침으로 독서가 생활화되도록 적극 힘써야 하겠다.

지금 거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읽지 않는 자는 현대의 문화생활로부터 낙후될 뿐이라고 강조하고 국민 스스로가 독서를 해야 하겠다는 필연적인 욕구를 불러 일으키도록 우리 함께 온갖 정력을 기울여 이번이야말로 무언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이래로만 방관할 수는 없지 않은가?

대학교육 개혁과 대학도서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국가발전을 위한 대학교육개혁과 대학도서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상 완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서과장)

1. 국내외의 대학교육개혁의 현상과, 여기에 부응하는 대학도서관과의 상관관계를 이론적인 면에서 고찰하고,

한국 대학도서관의 예민한 방향 감각을 유도해 보려는 것이 하나의 테마이고, 학문공동체(academic community)에서 가장 전위적이며 핵심적 두뇌의 역할을 대학도서관이 감당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대학교육개혁에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가설을 본론에서 전개하려는 것이 다른 하나의 테마이다.

2. 전통적 대학의 이념인 교육, 연구, 사회봉사의 기능을 요약하여 살피고, 대학교육의 새로운 차원으로서의 대학교육개혁의 추세는 사회·경제적으로 급격한 변동의 시대이며 생활향상에 대한 기대의 혁명적 상승기인 점을 감안할 때, 고등교육의 민주화 내지 보편화의 경향이며 그러므로 현대 사회의 복잡 다양한 문제들을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자세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세계적 추세를 살피고, 한국의 문교부 교육정책심의회와 대학교육개혁 확정안과 서울대학교 종합학 10개년계획과 연세대학교의 100주년까지의 15년장기계획을 중심으로 대학교육개혁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이념이 사태를 포괄할 수 없는 경우」와 「사태가 이념을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경우」로 놓고 볼때 우리의 현실은 후자라는 냉철함을 견지하고 다음과 같이 대학교육 개혁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인을 추출하였다.

- ① 대학교육의 이념과 역할 및 그 종류에 대하여 명확한 철학의 수립.
- ② 대학자유의 제도적 보장.
- ③ 교육과정의 개선과 교육방법의 쇄신.
- ④ 입학제도의 개혁.
- ⑤ 대학원 중심의 교육.
- ⑥ 졸업학점의 인하와 이에 따른 도서관, 실습실등의 연구시설 개선, 보완, 개혁.
- ⑦ 대학의 발전을 위한 경제적 여건의 확보.

3. 단적으로 표현하여 교육과 도서관, 연구와 도서관의 관계는 내용이 같되 표현이 다른 언어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비약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보며, 대학교육의 중심목적은 가치관의 혁명(Value revolution)에 있다면,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온상은 대학도서관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대학에서 연구를 빼면 그 생명은 고사(枯死)할 것이다. 교수는 강의, 토론, 실험, 개발지도 등 가르치는 방법에 상관없이 최종성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문에 도전하는 마음과, 호기심 및 비판능력을 일깨우며, 배움의 욕망을 권장하는 것이 의무인바, 이 과정에서 대학도서관은 절대적 존재의의를 갖는다. 이와같은 대학교육과 대학도서관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후, 대학교육을 개혁하기 위한 대학도서관 기능의 저변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를 밝혔다. 특히 대학교육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항목중에 대학도서관이 현재 전개하는 이상의 기능을 요구하는 것을 분석하고, 또한 이용자 자신의 비판적인 요구사항을 추출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논하였다. 과제중심의 학습방법으로 대학교육내용을 질적전환을 시키려면 이를 뒷받침할 개혁된 도서관은 필수적인 것이다. 기능의 확대는 기본적, 전통적인 대학도서관 업무는 물론 참고활동을 강조하고, Robert H. Muller의 새 차원의 대학도서관 기능을 폭넓게 제시하였다. 즉 특별자유열람집서(browsing collections)의 필요성; 학생 개개인, 학생단체 혹은 교수를 위하여 독서를 통하여 이어받았거나 축적된 사상을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며, 도서관 정기간행물의 한 묶음을 오랜 기간동안, 특수문제 혹은 시사성있는 관심사에 대한 부분을 통찰하고 연구기획하기 위하여 취하는 장기대출이 필요하며; 더욱 확대된 영역(breadth)과 아직까지 주의를 끌지못해 왔으며 가끔은 비난을 받는 “창시”(establishment)라는 새로운 조망(vistas)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접교과과정을 위한 자료의 준비; 이용자를 위하여 더욱 세분된 데이터로부터 정보측적을 증가시키기 위한 주제색인의 준비등이 그것이다. 또한 Harvard University는 특별히 학부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도서관제도를 실현하고 있고, 도서관을 아카데미센터(academic center)라고까지 부르는 경향이 모두 대학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새 차원의 방법론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주제발표 하는 한상완 선생)

4. 한국의 대학도서관은 혹평일지 모르나 문화실조(文化失調; Cultural deprivation)에 걸렸다고 볼 수 있다면, 이의 극복을 위하여 창의적이며 개혁적인 처방을 요청하게 됨은 당연한 논리의 귀결이다. 이를 위하여 최근에 열린 전국국립대학도서관장 및 사서장회의에서의 건의사항

과 M.A. Gelfand 박사의 제안을 결론으로 유도하였다. 전자는 대학도서관의 직제확립; 사서직 수당지급의 법제화; 도서구입비의 증액; 도서관장의 처우개선의 4개항목이고, 후자는 이보다 폭넓고 거시적인 개혁안으로서 다음의 4개항이다.

- ① 국가도서관 혹은 위원회(a national library advisory board or Commission)의 창설.
- ② 대학보조금위원회(University grants Committee)의 설립.
- ③ 도서 및 비책자자료등의 원활한 유통의 보장을 조처하는 일.
- ④ 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대학에서, 전문직사서에게 교수의 신분, 직위, 봉급에 상당하는 대우 등을 포함한 도서관 전문직의 발전을 조성하는 일.

대학교육개혁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대학도서관은 가장 우수한 전문사서를 확보하고, 가장 효과적인 활동을 대학사회에 제공하여 그 기능의 전 영역을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개혁의 요점이 될 것이다.

대 학 도 서 관 의 기 계 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가—

최 성 진

(서라벌예술대학 도서관장)

우리나라 대학사회에 컴퓨터시대가 오고 있다. 몇 대학에서 현재 학적자료 처리의 기계화가 진행중이고 어떤 대학도서관에서는 데이터 처리를 위해 컴퓨터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듣는다.

학적자료처리에 대해선 여기서 운위할 바 아니지만 도서관기계화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확실히 할 일이 한가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 도서관이 진정 컴퓨터를 필요로 하는가 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가? 지금인가? 반년후인가?……이 답을 내기 위해선 각 도서관이 기계화하려는 분야의 단위작업과정들의 원가계산을 하고 비교를 해야 한다. 그런 일의 결과는 물론 조사대상이 된 한 도서관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정 케이스를 피하고 일반적인 모델을 하나 들어 그것을 중심으로 다루고 조잡하나마 결론을 유도해 볼까 한다.

주제핵심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실증된 기계화 가능한 도서관 분야를 대략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1961년 미국 산디아고주립대학교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측차간행물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한 후 뒤를 따라 기계를 도입한 여러 대학도서관들이 「산디아고 시스템」에 한두가지 새로운 또는 개량된 기능을 끊임없이 더하여 도서관기계화는 보급과 더불어 보다 나은 응용을 향한 진화를 계속하여 왔다. 큰 도서관 특히 대학도서관안에서 컴퓨터의 위치는 없지 못할 것이 왜가고 있다. 오늘날 대학도서관에서 컴퓨터의 응용은 관리면, 자료정리면, 봉사면등 거의 모든 도서관 영역을 망라한다.

1. 행정자료 처리

전통적으로 대학도서관의 행정자료처리는 대학본부에서 맡아 관장 책임 밖에서 하고 있으며 기계도 대학본부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행정자료 처리라 함은 대체로 재정관계자료처리, 인사관계자료처리, 관리관계자료처리를 말하는데 이런 유의 자료 처리는 실상 컴퓨터가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일로서 처리방식이 거의 상식화되어 있다. 도서관의 방식도 다른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설명은 생략한다.

2. 수서사무

수서사무는 광범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MARC II 테이프를 통해 주문코자하는 자료의 서지사항 확인을 하는 일, 자료를 주문한 후 그 일이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를 “처리중” 자료목록을 통해 추적하는 일, 자료구입기금의 현황보고를 통해 연중 이후사용가능 금액을 알리는 일 등은 수서사무에서 기계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들이다. 이 밖에 수서사무에서 컴퓨터가 기여할 수 있는 일로 주문카드 작성,